

甄萱의 出身과 社會的 進出

申 虎 澈

I. 序 言

IV. 甄萱父子와 新羅政府

II. 甄萱의 出身과 社會的 地位

V. 結 語

III. 甄萱의 慶州進出

I. 서 언

甄萱은 주지하다시피 新羅末에 後百濟를 건국하여 옛 백제 지역을 지배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甄萱의 출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甄萱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甄萱政權을 살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新羅末 高麗初의 사회성격이나 호족세력의 성장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甄萱이 어떻게 하여 後百濟라고 하는 대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그가 사회적으로 진출하게 된 과정도 그의 출신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바로 甄萱의 身分과 그의 社會的 進出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甄萱의 先代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甄萱父子와 新羅 정부와의 관계 및 이들父子間의 對新羅政策에 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II. 甄萱의 出身과 社會的 地位

甄萱의 출신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나타낸 연구는 아직 없다. 甄萱의 출신이나 신분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는 “가난한 농민출신”¹⁾이나,

“농민의 아들”²⁾ 혹은 “농민출신으로 농민반란군을 규합하여 성장한” 인물³⁾ 등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여러 개설서에서 甄萱을 가난한 농민출신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甄萱傳의 기록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甄萱이 가난한 농민출신이었을까?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後百濟를 건국, 전라, 충청, 경상일대를 지배하는 대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甄萱의 신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甄萱 아버지의 출신과 사회적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두 甄萱傳에 보이는 甄萱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a-1) 甄萱 尙州加恩縣人也 本姓李 後以甄爲氏 父阿慈介 以農自活 後起家爲將軍(<三國史記> 甄萱傳)

2) 甄萱 尙州加恩縣人也 咸通八年丁亥生 本性李 後以甄爲氏 父阿慈介 以農自活 光啓中 據沙弗城 自稱將軍(<三國遺事> 後百濟甄萱傳)

위의 기록 a-1)에 의하면 甄萱의 아버지 阿慈介는 농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다 후에 將軍으로 起家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2)를 통해 阿慈介가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시기가 885~887(光啓中)년간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沙弗城을 그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사실도 사료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阿慈介의 출신지인 加恩縣과 후에 장군으로 성장하여 그 근거지로 삼았던 沙弗城이 동일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加恩縣은 본래 新羅의 加害縣으로 景德王代 高靈郡의 領縣이었다가 高麗末인

1) 李基白, 『韓國史新論』(一潮閣, 1976) p. 121 과 朴龍雲, 『高麗時代史』上(一志社, 1985) p. 36.

2) 邊太燮, 『韓國史通論』(三英社, 1986) p. 48.

3) 韓浩勳, 『韓國通史』(乙酉文化社, 1970) p. 124. 한편 金哲俊은 “甄萱은 원래 군인출신으로 지방군 세력이나 지방반란세력과 함께 초적세력·해적세력들을 통합하여...”라 하여 甄萱 출신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古代社會의 性格과 羅末麗初의 轉換期』, 『韓國古代社會研究』(知識產業社, 1975) pp. 283~284. 그러나 김철준은 甄萱세력의 성격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恭讓王 2년 聞慶의 屬縣이 되었던 곳으로 현재의 聞慶郡 加恩邑이다.⁴⁾

沙弗城은 沙伐城을 가리키는 것으로 沙伐城은 이미 新羅 新文王代에 축성되었는데, 沙伐州의 治所가 현 尙州邑이었던 것으로 보아 沙伐城은 이 일대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⁵⁾

따라서 阿慈介가 장군을 자칭하며 웅거했다고 하는 沙弗城은 현 尙州邑 일대라고 보아 무리가 없어 보인다.⁶⁾ 그렇다면 阿慈介의 출신지인 加恩縣과 그후 城主가 되었던 尙州와는 지도상 약 30여 km 떨어져 있어 동일한 지역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결국 阿慈介는 처음에는 加恩縣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점차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新羅 9州의 하나였던 尙州를 중심으로 城主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沙弗城의 城主가 된 阿慈介의 당시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간접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다음의 사료가 참조된다.

b-1) 尙州賊帥 阿字盖 來附於太祖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明王 2년 7월조)

2) 甲午 尙州賊帥 阿字盖 遣使來附 王命備儀迎之 習儀於秘庭 文武官俱就班 廣評郎中柳問律 與直省官朱瑄吉 爭列 王曰 讓爲禮宗 敬乃德本 今接賓以禮 將觀闕成而 問律瑄吉 爭列 豈敬慎者乎 宜竝徙邊 以彰其罪(〈高麗史〉 太祖世家 1년 9월)

사료 b-1)를 통해 尙州賊帥 阿字盖가 王建즉위 직후인 918년 7월에 高麗에 來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2)는 당시의 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다. 즉 阿字盖가 사신을 보내 王建에 귀부의 뜻을 알리자 高麗

4) 『高麗史』 권 57, 地理 2, 加恩縣條

5) 『三國史記』 新羅本紀, 新文王 7년. 沙伐州의 州治所에 대해서는 眞興王 1년까지는 現 尙州郡 沙伐面이었고, 新文王 7년 이후 현 尙州邑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鄭永鎬, 『尙州地區 古蹟調查報告書』 檀國大 博物館, 1969. 朴泰祐, 「統一新羅時代의 地方都市에 대한 研究」, 『百濟研究』 18, 1987, p. 57 참조)

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8, 尙州牧 古跡條에도, “沙伐國園城, 屏風山 아래 있다. 城 옆에 높고 둥근 구룡이 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沙伐國의 王陵이라고 한다. 新羅말에 甄萱의 父 阿慈介가 이 성에 웅거하였다”라고 있다.

한편 現 沙伐面 衾欣里에 山城이 남아 있는데 해발 170.8m의 낮은 구룡지대에 위치하며 인근 평야지대와의 差高는 불과 50~60m에 불과하다고 한다. (朴泰祐, 앞의 글, p. 69 참조)

에서는 문무의 관리들을 모아 빈객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阿字蓋의 귀부에 대해 高麗正統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阿字蓋가 독자세력을 거느린 대단한 호족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 王建에게 귀부한 尙州賊帥 阿字蓋는 甄萱의 아버지인 阿慈介와 동일 인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⁷⁾ 그렇다면 880년대 후반에 沙弗城을 근거로 하여 장군으로 자칭했다고 한 사료 a-2)의 사실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고, 新羅末 眞聖女王代의 阿慈介의 사회적 지위는 지방호족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阿慈介의 출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사료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b-3) 李碑家記云 ……是爲阿慈介也 慈之第一妻上院夫人 第二妻南院夫人 生五子一女 其長子是尙父萱 二子將軍能哀 三子將軍龍蓋 四子寶蓋 五子將軍小蓋 一女主大刀金 (〈三國遺事〉後百濟甄萱傳)

위의 사료는 後百濟甄萱傳에 인용된 〈李碑家記〉의 기사이다. 甄萱의 先代에 관한 내력을 적고 있는 이 기록은 그 사료적 가치가 크게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阿慈介가 上院夫人과 南院夫人, 2명의 妻를 두고 있었고 그 아들을 모두 將軍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尙州 일대에 토착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의 甄萱傳의 기록인 a-1), 2)에서 阿慈介가 姓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본래 姓은 李씨였으나 甄萱이 甄으로 姓을 바꾸었다는 것으로, 阿慈介의 姓이 李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⁸⁾ 阿慈介가 李씨였다는 사실은 b-3)의

7) 甄萱의 父인 阿慈介와 尙州賊帥 阿字蓋가 동일인물이 아니라 同名異人이라는 견해가 있다. (安鼎福, 『東史綱目』(附卷, 上, 阿慈介). 한편 尙州賊帥 阿字蓋와 甄萱과는 父子之間도 아니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金庠基, 「甄萱의 家鄉에 대하여」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1974, p.199). 그러나 필자는 沙弗城을 근거로 장군을 자칭했던 阿慈介와 尙州賊帥 阿字蓋는 동일인물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甄萱의 父 阿慈介가 太祖에 귀부한 사실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기는 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 볼 것이다.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李碑家記>는 <三國遺事>의 後百濟甄萱傳에 두차례 인용되고 있다. 그 하나는 甄萱 先代의 가계기록이요, 다른 하나는 甄萱 後代의 가계기록이다. 따라서 <李碑家記>는 甄萱의 가계를 기록한 일종의 家系譜(족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李碑家記>는 그 책명으로 보아 “李碑”家の 기록이라는 뜻일 것이다.⁹⁾ 이것을 一然이 <三國遺事>를 찬술하면서 後百濟甄萱傳에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⁰⁾

여기에서 “李碑”는 阿慈介의 후손으로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즉 阿慈介의 후손인 李碑는 阿慈介의 姓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甄萱이 후에 甄으로 稱姓했지만 그 후손 중 일부는 本姓인 李씨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阿慈介가 姓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城主로 성장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신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新羅末 성씨의 사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긴 하지만, 阿慈介가 李씨 姓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가난한 농민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아마도 어느 정도의 토착적인 기반(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을 가지고 있던 부유한 농민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한다. 어쩌면 촌주계열이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야만 주변의 촌민들을 규합하여 장군으로 자칭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新

8) 『三國遺事』 後百濟甄萱傳의 또다른 인용기사인 『古記』에는 甄萱이 15살에 스스로 甄萱이라 칭했다고 되어 있다.

9) 金庠基, 「甄萱의 家에 대하여」 p.196. 참조, 冊名 자체가 『李碑家記』는 아니었을 것이다. 李碑집안의 기록이라는 뜻으로 一然 자신이 붙인 이름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三國遺事』에 『寺中古記』, 『山中古記』, 『鄉中古記』 등 다양하게 인용되어 있는 것들도 고유 書名이라기보다는 “절에 전해 내려온 옛 기록”, “산속에서 전해진 옛 기록”, “지방에 전해내려오는 옛 기록” 등과 같은 뜻으로 一然이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後百濟 甄萱研究 1 …문헌적 검토…』 『百濟論叢』 1, 百濟文化改發研究院, 1985. 참조)

10) 王建의 世系에 대한 기록도 金寬毅가 諸家에 내려오던 문서를 모아 이를 참고하여 저술하였음을 참고하라. “(金寬毅) 訪集諸家私書文書 其後 閱讀 撰編年綱目亦因寬毅之說”(『高麗史』 世家序文)

羅말 지방의 토착세력이 城을 쌓거나 혹은 기존의 城을 중심으로 스스로 城主나 將軍으로 칭하면서 반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해가고 있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甄萱의 신분을 “가난한 농민출신”으로 해석한 중대의 견해들은 甄萱의 父 阿慈介가 “以農自活”했다고 한 甄萱傳의 기록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닌가 한다.¹¹⁾ 그러나 阿慈介가 “以農自活”했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하여 가난한 농민출신으로 해석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신의 농토를 소유한, 즉 전호신분이 아닌 자영농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以農”의 의미 속에는 新羅의 관직을 갖고 있던 관인신분, 노비와 같은 천민신분, 혹은 상공업에 종사하던 상공인출신 등이 아닌,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신분이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이며, “自活” 역시 阿慈介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다는 의미보다는 스스로의 생활기반을 갖고 활동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¹²⁾

아마도 그의 先代부터 이미(개간이나 농업경영 등을 통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경제적인 富를 축적했던 부유한 농민으로 보는 것이 당시 阿慈介의 사회적 지위를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城을 중심으로 하여 장군으로 자칭할 정도라면 주변 일대의 주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어야 했을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사회적인 기반을 가진 토착세력이야만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新羅末期 혼란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가난한 농민이 갑자기 장군으로

11) 후 甄萱傳에 보이는 “初萱生彌樸時 父耕于野 母餵之 以兒置於林下 虎來乳之 鄉黨聞者異焉”의 기록도, 견해를 가난한 농민출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전원이 나올 때부터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설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은 회박하다고 하겠다.

12) “活”에는 “勢가 强하다.” “盛하게 活動한다”라는 뜻이 있다.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권 6, p.1119), 한편 “自活”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있다. (위의 책, 권 9. p.407)

자칭할 만큼 주변의 지지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한다.

예컨대 弓裔의 경우, 그가 왕자출신으로 일찍부터 뜻을 두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竹州賊 良吉의 부하로서 활약하다 후에 양질을 축출하고서야 자신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弓裔가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비록 新羅 眞骨出身(王子)이었지만 자신의 토착적인 기반을 가지지 못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王建이 일찍 弓裔의 휘하에 있으면서 “百官의 長”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그가 토착세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며 弓裔의 뒤를 이어 王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생각한다. 洪儒, 申崇謙, 卜智謙 등이 弓裔를 축출하고 王建을 추대한 것은 王建이 弓裔政權下에서 侍中の 직에 있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그보다도 王建의 출신이 송악을 근거로 한 호족세력으로 자신의 토착적인 기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³⁾

이상 논의된 阿瑟介의 출신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 甄萱의 신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甄萱은 그의 先代부터 비록 신라정부의 지배체제 내에 속해 있었던 관인신분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先代 이래의 부유 농민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父 阿瑟介代에 이르러 新羅의 지방통치가 해이해지자 기존의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한편으로는李姓로 稱姓하면서 주변 촌민들의 지지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족 및 家人 등을 중심으로 家兵내지 私兵의 성격의 군사적인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다. 그러다 880 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沙弗城을 근거지로 하여 將軍을 자칭할만큼 일대 호족세력으로 성장해간 것이라 볼 수 있다.

13) 물론 洪儒, 申崇謙 등 6월 쿠데타의 주동세력들은 王建과는 달리 자신의 독자적인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던, 그렇기에 弓裔政權하에서 자신의 무공으로 將軍의 職에 올랐던 인물들이라고 생각한다. 高麗건국의 핵심인물이며서도 그 후손들이 중앙정부의 문벌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들의 출신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甄萱은 가난한 농민출신이 아니라 尙州지방의 豪族出身이라 하겠다.

Ⅲ. 甄萱의 慶州進出

尙州에서 城主로 성장한 阿慈介의 아들중 장남인 甄萱은 新羅의 중앙군으로 入京했다. 그 후 甄萱은 중앙군으로서 西南海의 防戍軍으로 파견된 듯하다. 그가 中央軍으로 入京한 이후, 서남해 방수군으로 新羅정부에 반기를 들기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甄萱傳에 다음의 기사가 보일 뿐이다.

c-1) 及壯體貌雄奇 志氣倜儻不凡 從軍入王京 (〈三國史記〉甄萱傳)

2) 赴西南海防戍 枕戈待敵 其勇氣恒爲士卒先 以勞爲裨將 (위와 같음)

3) 於是甄萱有覬心 驍豪徒侶 行擊京西南州縣 所至響應 旬月之間 衆至五千人 遂襲武珍州 自王 猶不敢公然稱王 (위와 같음)

우선 甄萱이 新羅의 중앙군으로 入京하게 된 것은 언제쯤이었으며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甄萱傳에 의하면 甄萱은 867 (景文王 7년)에 태어났고¹⁴⁾, 892년 (眞聖王 6년) 즉 그의 나이 27살 때 武珍州(光州)를 습격하여 自王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阿慈介가 沙弗城을 근거로 장군을 자칭한 때는 885~888년으로 甄萱의 나이 20세 전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甄萱이 중앙군으로 入京한 때 역시 이 시기의 일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阿慈介가 尙州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장군을 자칭하며 호족세력으로 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장남인 甄萱을 중앙군으로 入京시킨 것이 아닐까

14) 甄萱의 출생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後百濟甄萱傳에 “咸通八年 丁亥生”이라는 기록이 유일하다. 이는 甄萱정권 말기 甄萱이 高麗에 귀부했을 때, 甄萱의 나이가王建보다 10년 年長이기 때문에 尙父라 칭하였다는 기록을 보고 王建의 출생해인 877년으로부터 계산하여 一然이 註記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이다.¹⁵⁾

왜냐하면 阿慈介는 將軍을 자칭하게 되자 지방민들에게 상징적인 권위가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들을 중앙군으로 番上立役시킴으로서 新羅의 중앙정부와 연결을 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곧 지방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는 길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식을 보내 중앙과의 연결을 꾀하는 예는 新羅말기 지방호족에게서는 아주 흔히 나타난다. 몇가지 예만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d-1) 康州將軍閔雄 遣其子一康爲質 拜一康阿榮 以卿行訓之妹妻之 遣郎中春讓於康州 慰諭歸附 (〈高麗史〉太祖世家 3년 정월조)

2) ① 溟州將軍順式 遣子降附(유택,太祖世家 5년 7월조)

② 溟州將軍順式 來朝(유택,太祖世家 11년 정월조)

3) 碧珍郡將軍 良文 遣其甥 圭奐 來降 拜圭奐元尹(유택,太祖世家 6년 8월조)

4) ① 眞寶城主洪術 遣使請降 遣元尹王儒 卿舍弼等 慰諭之(유택,太祖世家 5년 11월조)

② 眞寶城主洪術 遣其子王立獻鐵三十 拜王立元尹(유택,太祖世家 6년 11월조)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康州(晉州)의 장군 閔雄은 아들 一康을 보내어 王建과의 연결을 꾀하고 있고(d-1), 碧珍郡 장군 良文은 그의 생질인 圭奐을 高麗정부에 보내 귀부하였다(d-3). 한편 溟州(江陵)장군 順式은 922년 아들을 먼저 보낸 다음(d-2) ①), 6년 후인 928년에 가서야 자신이 직접 高麗정부에 귀부하였으며(d-2) ②), 眞寶城主 洪術 역시 사신을 보내 高麗와의 연결을 꾀한 다음(d-4) ①), 다음해인 923년에 자신의 아들 王立을 보내 갑옷 30 벌을 바침으로써 중앙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

15) 甄萱이 新羅의 중앙군으로 入京하게 된 것은 그가 體貌雄奇 志氣倜儻不凡한 武人의 자질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李基白, 「新羅私兵考」 p. 273) 그보다는 그의 출신 배경 때문으로 이해하고 싶다. 즉 體貌雄奇 등과 같은 표현은 대단히 의례적인 것으로 이와 비슷한 기록은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있다(d-4) ②).¹⁶⁾

이들 지방호족의 자식들은 入京하여, 위의 예에서 보이듯, 주로 阿絜이나 元尹 등과 같은 중앙관직을 제수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주요 임무는 중앙군으로서의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호족의 자제들은 사병들을 이끌고 入京하여 자신들의 지휘하에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¹⁷⁾

만약 甄萱이 尙州호족의 장남으로 중앙군에 立役했다고 한 필자의 추론이 틀리지 않는다면, 甄萱 역시 자기 자신만 入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甄萱과 함께 그의 휘하 군인들도 같이 갔을 것이고, 그들 군인들은 沙伐城의 城主 阿慈介의 사병들이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것은 위의 d) 群의 사료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¹⁸⁾

甄萱이 이끌고 간 그의 가병은 말할 것도 없이 甄萱의 지휘를 받았을 것이고 그가 중앙군에서 서남해안의 방수군으로 파병되었을 때도 이들 家兵 역시 甄萱을 따라갔을 것이다. 甄萱이 중앙군으로 진출한 후 서남해안의 방수군으로 나가 裨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가병집단을 거느리고 있던 그의 출신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裨將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위였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新羅의 무관직에는 裨將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단위 부대의 지휘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⁹⁾

16) 이밖에도 지방 호족들이 아들이나 동생, 조카, 사신 등을 보내 중앙정부와의 연결을 꾀하고 있는 예는 무수히 많다.

17) 李基白, 「新羅私兵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尹熙勉, 「新羅下代の 城主・將軍」 『韓國史研究』 39, 1982. 참조.

18) 비록 d) 군의 사료가 高麗 王建의 경우이긴 하지만 新羅末의 상황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 裨將의 사전적 의미로는 두가지 뜻이 있다. 그 하나는 副將, 즉 大將을 보좌하는 將官으로 독립된 지휘관이 아니라 보좌관적인 성격이다. 한편 隊長이라는 뜻이 있다.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권 10, p. 229) 여기서는 후자의 뜻임에 틀림이 없다. 즉 獨立된 部隊의 지휘관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1) 是時北原賊良吉雄強 弓裔自投爲麾下 萱聞之遙授良吉 職爲裨將(〈三國史記〉甄萱傳)

위의 e-1)은 당시의 裨將의 성격을 짐작케 해주는 기록으로 甄萱이 良吉에게 裨將의 직위를 주었다는 것이다. 良吉은 新羅달 北原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농민반란군의 두목으로, 原州를 비롯하여 忠州, 提川, 淸州 등 中·北部 일대에 영향을 미쳤던 강력한 세력이었다. 弓裔는 이때 기원의 부하로 있다가 신원 등과 함께 良吉의 부하로 들어갔었다. 甄萱이 이 소식을 듣고 良吉에게 裨將의 직위를 제수했다는 것이다. 良吉이 실제 甄萱의 裨將이 되었는지 어떤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료의 부족으로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기록으로 당시 裨將의 지위라든가 직책 등 그 성격을 짐작할 수는 있다고 본다. 즉 光州, 全州 일대를 지배하던 甄萱이 北原의 賊帥 良吉에게 제수했다고 한 裨將의 직위는 독립된 部隊의 지휘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全 軍隊의 總指揮官은 아니라 할지라도 단위부대의(예컨대 師團이하의 大隊, 中隊, 小隊와 같은) 隊長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참모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독립된 지휘권을 가진 부대의 長이라 하겠다.

甄萱이 독립된 단위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다고 한 것은 그의 예하에 독자적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 휘하 군인들은 甄萱에게 복종하는 군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甄萱이 중앙군으로 入京할 때 거느리고 갔던 尙州 출신의 군인들, 즉 甄萱 아버지 阿慈介의 가병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甄萱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의 측근 중의 측근이었을 것이며, 甄萱이 서남해안으로부터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그의 직속부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甄萱이 반기를 든지 한달만에 토착적 기반이 없는 가운데서도, 5천의 무리를 모았다고 한 사실만 보

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892년 武珍州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그가 호족출신으로 그의 명령에 복종하던 자신의 가병을 비롯하여 독립된 부대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데서 가능한 일이었다.

IV. 甄萱父子와 新羅政府

甄萱이 군사를 일으켜 光州를 거쳐 全州에 도움을 정하여 後百濟를 칭하는 동안 甄萱의 아버지인 阿慈介는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동안의 甄萱과 阿慈介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이에 관해서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두 甄萱傳에도 전혀 기록이 없다. 다만 甄萱의 아버지가 阿慈介라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尙州賊帥 阿字盖가 高麗 王建에게 귀부했다고 하는 앞서의 b-1), 2)의 기록은 두 甄萱傳에는 없고 <三國史記>의 景明王 본기와 <高麗史>에만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尙州賊帥 阿字盖의 활동이나 甄萱과 阿字盖와의 관계에 관한 기록이 두 甄萱傳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아무래도 金富弼이나 一然이 尙州賊帥인 阿字盖와 甄萱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⁰⁾ 따라서 阿字盖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유일한 기록인 高麗에의 귀부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다시 한번 이 기록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b-1) 尙州賊帥 阿字盖 來附於太祖(<三國史記> 新羅本紀, 景明王 2년 7월조)

2) 甲午 尙州賊帥阿字盖 遣使來附 王命備儀迎之 習儀於秘庭 文武官俱就班(<高麗史> 太祖世家 원년 9월조)

尙州賊帥인 阿字盖는 王建이 즉위한 직후에 高麗에 귀부하였다. 그런데

20) 참고, 「後百濟 甄萱研究 1」 참조. 아마도 金富弼이나 一然은 尙州賊帥 阿字盖와 沙弗城에서 장군으로 자칭했던 阿慈介와는 별개의 인물로 인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阿字盖가 高麗에 귀부한 918 년은 이미 甄萱이 武珍州를 습격, 自王한지 (892) 26 년이 지난 때이고 전횡의 세력이 한창 절정에 이른 시기이다. 後百濟王 甄萱의 아버지인 阿慈介가 이제 새롭게 등장한 王建에게 귀부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래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金富軾이나 一然은 阿字盖의 高麗귀부 사실을 甄萱과 무관한 일로 이해하여 甄萱傳에 수록하지 않았고, 또한 安鼎福은 <東史綱目>에서 尙州賊帥 阿字盖와 甄萱의 아버지인 沙弗城의 城主 阿慈介를 서로 다른 인물인 것이라고 추론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최근 金庠基가 甄萱의 출신지를 尙州가 아니라 光州일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그 핵심은 阿慈介의 高麗 귀부사실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阿慈介의 高麗 귀부사실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따라서 阿慈介의 高麗 귀부의 의미를 옳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甄萱정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甄萱父子가 新羅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과 甄萱이 新羅 정부에 반기를 든후 甄萱과 阿慈介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먼저 甄萱父子와 新羅정부와의 관계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앞장에서 우리는 阿慈介가 그의 장남인 甄萱을 新羅의 중앙군으로 入京시켰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호족인 阿慈介가 新羅정부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렇다면 阿慈介는 新羅정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阿慈介가 甄萱을 경주에 보낸 것은 新羅 정부에 충성을 서약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880 년대까지는 지방의 세력가라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아직도 新羅 중앙정부의 지배체제 하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신흥 호족층인 阿慈介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甄萱을 入京시켰던 것이며, 이에 新羅정부의 阿慈介에 대한 상대적인 급부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선은 호혜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만은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阿慈介는 新羅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세력권인 尙州 일대를 효과적으로 지배해 갔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甄萱 자신은 新羅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甄萱은 중앙군으로 入京하자 新羅末期 骨品體制의 해체에 따른 어지러운 중앙의 정치현실과 정부의 취약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후 서남해 방수군으로 지방에 나가서도 지방군의 해이된 분위기와 중앙에 대한 불만을 쉽게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당시의 중앙과 지방의 상황을 일찍 체험할 수 있었던 甄萱은 마음 속으로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甄萱이 중앙군으로 入京하면서부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甄萱傳의 기록을 통해 이를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f-1) 及壯體貌雄奇 志氣倜儻不凡 從軍入王京 (〈三國史記〉甄萱傳)

2) 赴西南海防戍 枕戈待敵 其勇氣恒爲士卒先 以勞爲裨將 (위와 같음)

3) 百姓流移 群盜蜂起 於是萱竊有覬心 嘯聚徒侶 南行京擊西州縣 (위와 같음)

위의 사료에서 우리는 f-1)의 志氣倜儻不凡이라든가, f-2)의 枕戈待敵 其勇氣恒爲士卒先, f-3)의 竊有覬心 嘯聚徒侶 등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甄萱이 중앙군으로 入京한 후부터 新羅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자 한 뜻을 지니고 있었음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서남해 방수군으로 나가 있을 때 枕戈待敵하는 등 그 勇氣가 항상 士卒의 앞에 있었다고 한 것에서 우리는 주위의 신망을 얻으려고 노력하던 甄萱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張保皋가 壯士를 사랑했다고 한 것이이라든가,²¹⁾ 弓裔가 전장에 나

21) 『三國史記』 (11, 文聖王 8년 春). 李基白, 위의 글, p. 278 참조.

가 사졸과 함께 동고동락할 뿐아니라 모든 사졸에 대해 공평무사했다고 한 것²²⁾ 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특히 진성왕대의 정치적인 혼란과 연이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流移되고 도적떼가 봉기하는 등, 甄萱은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으로 생각하여 “남몰래 반기를 들 마음을 품고 무리(徒侶)들을 불러 모았다고” 한 것을 보면 甄萱의 그러한 야심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甄萱의 新羅에 대한 태도는 그의 아버지 阿慈介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新羅의 명목적인 권위를 빌어 지방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阿慈介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와는 달리 甄萱은 자신의 독자적인 군사기반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로는 허물어져가는 新羅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甄萱父子의 對新羅 認識의 차이는 자연 이들父子간의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親新羅政策을 추구하던 阿慈介는 新羅에 叛感을 가지고 있던 甄萱과는 점차 멀어질 수 밖에 없었고 자연 新羅에 대한 阿慈介의 입장도 곤란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甄萱이 新羅 타도를 내세우며 後百濟를 건국하게 되자 阿慈介와 甄萱과는 완전히 대립된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親新羅政策을 추구하고 일어난 王建에게 귀부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推論이 너무 비약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의 여러가지 情狀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같은 결론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沙伐城의 城主가 된 阿慈介의 활동이 甄萱정권기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 阿慈介는 甄萱을 포함하여 네형제를 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²³⁾ 그러나 이들이 甄

22) 『三國史記』弓裔傳 “與士卒同甘苦勞逸 至於予奪 公而不私 是以衆心畏愛”

23) 『三國遺事』(2, 後百濟甄萱)에는 “阿慈介… 有四子 皆知名於世”라 있고, 또

甄萱정권에서 활약했다고 하는 기록 또한 찾을 수 없다. 이것은 阿慈介와 甄萱의 형제들이 甄萱정권수립 후 武珍州나 全州로 옮겨 甄萱정권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尙州의 호족으로 남아 그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阿慈介 및 (甄萱을 제외한) 그 아들들이 甄萱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甄萱과 阿慈介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阿慈介는 계속 親新羅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尙州일대의 호족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유지하고자 했을 것이지만, 점차 尙州일대가 弓裔정권의 세력권하에 놓이게 됨에 따라 阿慈介의 세력도 점차 약화되어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다 弓裔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王建이 親新羅政策을 표방하게 되자 자연 高麗에 귀부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甄萱의父이자 두 나라 사이의 접경지역인 沙弗城의城主 阿慈介가 高麗의 귀부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념적 새로운 정권을 수립한 왕건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아마도 高麗정부에서도 阿慈介의 귀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포섭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다.²⁴⁾ 王建 자신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궁정에 나가 대대적인 환영을 준비한 것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둘째, 甄萱과 阿慈介와의 관계변화는 尙州일대를 둘러싼 王建과 甄萱의 전투양상을 통해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즉 阿慈介가 王建에 귀부한 지 약 10년 후에 尙州일대를 둘러싸고 王建軍과 甄萱軍이 쟁탈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에 관한 기록은 <高麗史>나 <三國史記>本紀에 나타나 있다.

“李碑家記云…(阿慈介)生五子一女 其長子是尙父萱 二子將軍能哀 三子將軍龍蓋 四子寶蓋 五子將軍小蓋…라는 기사도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다.

- 24) 阿慈介의 귀부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 阿慈介의 귀부의사 외에 高麗측에서도 적극적인 포섭책을 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阿慈介의 귀부가 阿慈介의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溟州장군 王順式的 귀부 과정을 상상하면 좋을 것이다.

甄萱이 後百濟를 건국한 후 자신의 고향이자 아버지의 세력기반이었던 尙州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자.

- g-1) 天成二年秋九月 麗取近品城 燒之 進襲新羅高鬱府 (〈三國史記〉甄萱傳)
甄萱攻燒 近品城 進襲新羅 (〈高麗史〉太祖 10년 9월)
- 2) 甄萱 圍加恩縣 不克而歸 (〈三國史記〉12, 敬順王 3년 10월)
甄萱 圍加恩縣 不克 (〈高麗史〉, 太祖 12년 10월)
- 3) 甄萱圍 古昌郡 王自將 求之 (〈高麗史〉太祖 12년 12월)
萱大舉兵 次高昌郡 旌山之下 與太祖戰 不克 死者八千餘人 翌日 萱聚殘兵 襲破順州城...萱虜百姓 移入全州 (〈三國史記〉甄萱傳)

위의 사료 g-1)은 甄萱이 927년 9월에 近品城을 공격하여 이를 불태워 버렸다는 것이고, g-2)는 그 2년후인 929년 10월 甄萱이 加恩縣을 치기 위해 이곳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高昌郡을 공격했으나 오히려 왕건군에 패하여 전횡군 8천이 [전사했다. 다음날 전횡은 殘兵을 이끌고 順州城을 습격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전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g-3).

이상의 기록은 甄萱과 王建이 尙州 일대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즉 甄萱은 근품성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이어 가은현과 고창군에서의 전투에 [패배하자 순주성을 공파하고는 그 주민들을 후백제의 수도인 전주로 잡아가고 있다. 阿瑟介의 세력권이라 할 수 있는 尙州 일대에 대한 甄萱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父 阿瑟介가 王建에 귀부하여 高麗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데 대한 보복적인 행동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王建의 활동은 어떠한가. 甄萱이 자신의 고향인 加恩縣을 공격하여 이곳에 대한 탈환을 꾀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이어 고창군 전투에서도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그것은 이 일대에 대한 高麗軍의 방어가 그만큼 강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 곳에 대한 王建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으니, 甄萱이 고창군을 공격해오자 王建은 친히 군사

를 이끌고 가서 이를 구하였다. 즉 王建의 이곳 일대에 대한 태도는 甄萱의 보복적인 행동과는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결국 阿慈介는 親新羅의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尙州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세력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데 반해, 甄萱은 서남해 방수군을 기반으로 하는 자신의 독자적인 군인세력을 구축하면서 反新羅의인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889년(眞聖女王 3년)에 반기를 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甄萱父子간의 新羅에 대한 입장이랄까 政策의 차이는 阿慈介와 甄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王建이 親新羅 政策을 표방하면서 高麗를 건국하자 이에 阿慈介는 高麗에 귀부하고 말았던 것이라 하겠다.

V. 결 어

지금까지 甄萱의 출신과 그의 사회적 진출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요

25) 阿慈介와 甄萱과의 관계가 對新羅政策으로 인해 서로 대립적이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甄씨 姓의 本貫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960년 국세 조사당시, 전국의 甄씨는 446명이고 그 本貫은 黃澗과 尙州 二本으로 黃澗 甄씨의 始祖는 甄萱으로 되어 있지만 尙州甄씨의 始祖는 阿慈介로 되어 있다. (『韓國姓氏大觀』甄氏, 1073 등) 그런데 黃澗의 현 행정구역은 忠北 永同郡 黃澗面으로 가온현과 인접해 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시사이다. 다시 말하면 尙州 일대의 城主가 된 阿慈介를 始祖로 하는 派는 尙州를, 全州에서 後百濟를 일으킨 甄萱을 始祖로 하는 派는 그의 출신지 加恩과 인접한 黃澗을 각각 본관으로 삼고 있어 두파로 갈라져 있다. (甄萱을 始祖로 하는 派가 왜 加恩을 본관으로 하지 않고 黃澗으로 했는지 잘 알 수 없다) 이것은 阿慈介와 甄萱이 對新羅 政策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되어 있었던 당시의 사정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한 인구센세스에 의하면 1985년 11월 1일 현재 甄씨는 전국에 235가구 99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本貫別로 보면 全州 甄씨 511명, 黃澗 甄씨 405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尙州 甄씨는 불과 1명일 뿐이다. (東亞日報, 1987년 12월 26일자 “성씨본관별 인구수”) 全州 甄씨의 시조 또한 甄萱으로 이것은 역시 阿慈介 派 보다는 甄萱을 始祖로 모시는 파가 절대적으로 강성했음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약함으로써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甄萱은 그의 아버지 阿慈介代에 沙伐城의 將軍으로 자칭하면서 尙州 일대를 지배하는 지방세력가로 성장한 호족출신이었다. 원래는 加恩縣의 농민층이었지만 그러나 가난한 농민이었다기 보다는 개간이나 농업경영을 통해 富를 축적했던 부유자영농이었던 阿慈介는 新羅末 골품체제의 해체에 따른 지방의 통치가 해이해지자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하여 新羅 9州의 하나였던 尙州로 나아가 지방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가(城主)로 대두하였다. 그러자 阿慈介는 新羅 중앙정부와 관계를 맺기 위해 그의 장남인 甄萱을 중앙군으로 入京시켰다. 물론 이때에 甄萱은 자신의 휘하 군인들을 이끌고 入京했을 것이며 이들 군인들은 沙弗城의 城主였던 阿慈介의 家兵으로 尙州 일대의 지방민들이라 하겠다.

新羅의 중앙군으로 慶州에 진출한 甄萱은 당시의 혼란했던 정치현실을 몸소 체험하자 점차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마음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甄萱의 뜻은 그가 서남해의 방수군으로 나가면서 더욱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항상 주변의 인심을 얻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휘하장병들에게 용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그의 뜻을 현실화해 갔던 것이다. 이러한 新羅에 대한 甄萱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인 阿慈介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즉 阿慈介는 新羅 중앙정부의 권위를 빌어 지방에 대한 자신의 지배적 권위를 유지해 가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던데 반해, 甄萱은 新羅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阿慈介와 甄萱의 신라말 정치현실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甄萱이 武珍州에서 新羅에 반기를 들면서 점차 甄萱父子간은 대립된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阿慈介는 甄萱이 後百濟를 건국한 후에도 甄萱政權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尙州지방의 호족으로 잔존하고 있었다. 그후 弓裔의 부하였던 王建이 親新羅政策을 추구하면서 高麗를 건국하자 阿慈介는 高麗에 귀부하고 말았다.

甄萱가 사회적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우선 新羅中央軍에 입역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후 지방군으로 파견되어 독립된 부대의 지휘관이 되면서 자신의 휘하군인들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물론 건원이 독자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慶州 入京 때부터 함께 따라간 尙州의 家兵出身도 큰 힘이 되었겠지만 西南海 防戍軍의 裨將이 된 후 士卒들의 신망을 얻는 등 甄萱 자신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尙州의 將軍이자 자신의 아버지였던 阿慈介와는 달리 新羅末期의 정치현실에 대한 진취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